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과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뚝배형식의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외벽에 타일까지 붙이니 정말 멋있다고, 우리 당의 과학증시, 인제증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대만축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호동 5층 1호와 살림집밀단에 꾸려지고있는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볼수록 멋쟁이라고, 대동강 건너에서 바라보면 더 멋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제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배합된 건축물이 로동당시대에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호소에 호응하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담게 일을 잘 하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이 부르는 곳

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가 제기일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결과관철하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 감으로써 당창건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건축물팔조공사 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시공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과 미래사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 수 있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며 제일로 사랑하신 우리 아이들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을 일떠세운다는 자각을 안고 당의 의도대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룰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룰 지도하시였다.

검열경기에는 국가종합팀과 4.25팀이 참가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기에서는 국가종합팀이 4.25팀을 8: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선수들이 집단주의정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훈련방

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선수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

를 가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오늘은 조국해방 69돐이 되는 날이다.

주체 34(1945)년 8월 15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으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찾아주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조국의 해방은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의 일대 사변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의 비운이 절정에 달하였던 때에 20성상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온갖 간난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전쟁이었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시련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것은 강철의 위장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사변이다. 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위락위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사설

태양이시였고, 전설적영웅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새 삶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해방의 그날은 삼천리강토가 민족재생의 환희, 해방의 감격으로 새창이 활짝열렸다.

조국해방의 기쁨과 환희, 정녕 그것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었었고 그이의 령도밑에 민족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만만한 투지와 의욕의 분출이었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는 또다른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38°선에 의해 본의아니게 둘로 갈라졌다.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겨레의 지향에 정면도전해나갔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1970년대초 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폭넓은 북한협상방침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

과 민족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민족주체적력량의 단합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북한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기록되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 《정권》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북과 남사이

에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유린하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리명박 매당의 발악적인 반공화국대결책

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해 남조선에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북남관계는 의연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것은 남조선의 현 《정권》이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대결과 전쟁정책을 추구하는데 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어질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최극단으로 치닫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과탄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을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전면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적적산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